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43호(98/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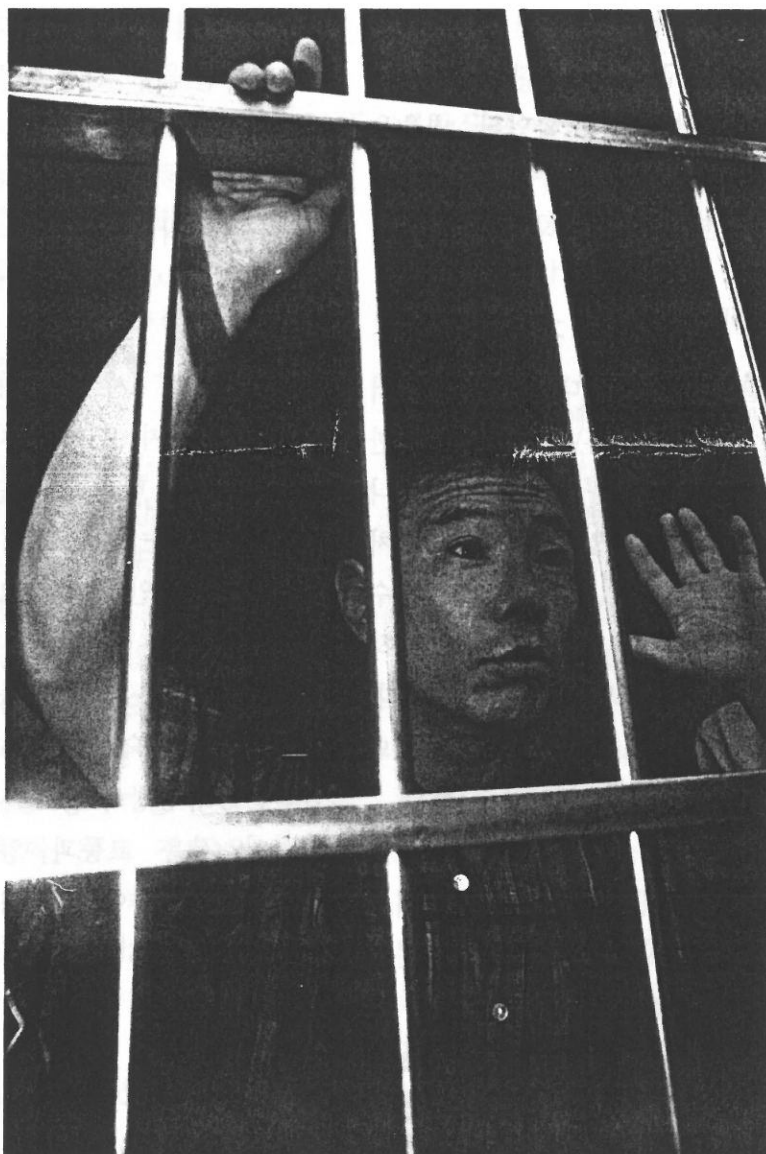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누가 이들을 가두었는가?

7월 16일, 양지마을의 생활실에 갇힌 채 인터뷰에 응하는 원생

## <양지마을의 진실을 찾아서>

# 강제수용에서 죽음까지, 현대판 아우슈비츠

요즘 충남 연기군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양지마을'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아침, 양지마을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중심이 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이성재 의원, 김병후 원장이 포함된 진상조사단과 mbc PD 수첩을 비롯한 기자단 40여명이 양지마을을 급습했습니다. 양지마을 사건 경과와 양지마을에서 확인된 내용을 인권하루소식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1. 양지마을 진상조사 경과

지난 7월 6일 오후 동국대 학생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박영섭(38)씨를 곧바로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깊은 상처가 썩어들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먼저 성수 의원으로 보내 상처부터 치료하도록 조치하였고, 다음날부터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약 5일동안 진행된 대화를 통해 양지마을의 구체적인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증언을 기초로 인권유린실태보고서가 만들어졌고, 7월 13일 조치원 현지에서 양지마을을 취재, 보도한 동양일보 기사를 만나 사실을 간접 확인했습니다.

7월 14, 5일 이틀동안 은밀히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이성재 의원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내려갈 기자단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밤, 조사단 14명과 기자단 약 30명이 천안에 집결하였습니다.

7월 16일 아침부터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아침을 걸른 조사단은 오전 7

시 30분경, 양지마을과 송현원, 양지요양원 세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문에 도착, 곧바로 양지마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오후까지 양지마을과 송현원(정신요양원)에 대한 진상조사작업을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송현원 옥상과 지하실에서 시설측이 은닉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백명 정도의 시설측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크고 작은 싸움이 이어졌고,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다리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30분경, 시설측이 제공한 버스로 퇴소자 23명(양지마을 18명, 송현원 5명)을 함께 태운 조사단은 양지마을 사망자를 매장하는 공동묘지 '개미고개'에 도착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고, 이후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이틀밤을 지냈습니다. 그 뒤 서울로 올라온 퇴소자들은 영등포근로자합숙소 등지에 숙소를 잡고, 민변 변호사들과 인권운동사랑방측의 조사단과 면접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양지마을의 진실들을 진술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2일 퇴소자들은 인권 3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 2. 조사결과 확인된 진실

#### 가. 철저한 족벌체제

노재중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68. 12. 1. 설립) 산하에 충남 연기군에 양지마을(부랑인수용시설), 송현원(정신요양원), 양지요양원(장애자수용시설), 양명보육원(교아

원)을, 대전 대화동 인근에 자강원(부랑인수용시설), 온달의 집(정신장애자 수용시설, 여자를 수용하는 평강의 집이 내부에 존재), 정화원(?), 원명학교(농아 특수학교) 등 8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화동과 신탄진의 한일병원도 노재중의 소유라고 합니다.

#### (1) 노재중과 본처, 자식, 친인척관계

97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노재중은 본처와 후처 등 친인척을 요직에 배치하고 철저하게 족벌체제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노재중의 본처 윤진순(57)은 온달의 집 원장, 첫째 아들 노한호(33세 정도)는 천성원 기획실장 겸 노재중의 비서역할, 둘째 아들 노준호(28세 정도)는 평강의 집 총무, 셋째 아들 노완호(24세 정도)는 송현원 총무로 재직중이며, 그의 딸은 원명학교 교사를 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98년 6월 사망한 노동성은 자강원의 창설자로 노재중의 친척, 현 자강원 원장 노재기는 노재중의 사촌동생입니다.

#### (2) 박정자의 친인척관계

노재중의 후처인 박정자(51세 정도) 송현원 원장의 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 원명학교 교사와 노재중의 비서 출신입니다. 박정자의 동생인 박종구(40)는 양지마을 원장이며, 박종구의 처 장병렬(여, 37세 정도)은 부원장입니다. 박정자의 딸 노현희(25 정도)는 송현원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 나. 강제수용

양지마을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에 있는 성인남녀 부랑인 수용시설이며 같은 번지내에 정신요양원인 송현원과 장애인 재활시설인 양지요양원과 함께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475명이고, 97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464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83년 2월 설치된

양지마을은 3미터도 넘는 콘크리트 담장(교도소 담장과 같음)이 있으며, 원생들이 거주하는 3개동의 2층 건물들과 쇼핑백, 자전거(유아용), 철공, 가방, 볼 등의 공장과 식당으로 이뤄졌습니다. 생활실은 건물 중앙에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양 옆에는 간부들의 살림방이 각 하나씩 있으며, 다시 오른편과 왼편 출입문이 있으며, 안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5평 정도의 큰 2개와 3평 정도의 작은방이 3개씩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큰방에는 12~15명 정도가 수용되며, 작은 방에는 6~7명씩 수용되는데, 생활실의 방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밤 9시 이후에는 생활실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원인 송현원은 수용인원이 320명(남 210명, 여 10명)(위탁자가 약 80%, 그외는 단속과 고아원 등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음)이며, 정신질환자로 한일병원에 36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본관, 신관, 식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실은 본관과 신관에 있으며, 본관에 방 14개, 신관에 방 9개가 있습니다. 생활실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정벌방인 6개의 독방은 2평 미만으로 쇠창살, 식구통, 수도,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1~4호실까지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본관 지하실에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본관 2층에 강당이 있는데, 이곳도 작업장으로 이용합니다.

이런 시설만으로도 두 시설에서 강제수용을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던 일부 시설 말고는 쇠창살을 부여잡고 원생들이 집에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양지마을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실제 부랑인이라기 보다는 무차별 단속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입니다. 또, 노재중이 운영하는 성지원 등지에서 노동력이 있는 경우 차출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5-10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입퇴소 절차도 전혀 밟지 못하는 가운데 감금됩니다. 양지마을측은 경찰들의 협조를 얻어서 천안역, 조치원역, 대전역 등지에서 대부분의 원생들을 충원합니다. 이들은 탑차(냉동차)에 실려서 양지마을로 직행합니다.

#### 다. 강제노역

두 시설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작업거부는 곧 폭행이나 독방행, 또는 CP라는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복용하게 되어 결국은 정신병자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거부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보통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하여 6시 30분 정도부터는 공장에 들어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전작업을 11시 40분경까지 하고, 급히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오후 5시 이전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잔업이 있는 경우는 보통 오후 9시까지 하게 되며, 일이 많을 때는 며칠이고 밤잠을 못 자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방 공장의 경우는 약 1백명 정도가 작업에 투입되는데, 가장 잔업과 철야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노동의 댓가로 월 3천원에서 1만여 원까지의 금액(간부는 1만3천원에서 3만원)을 카드로 지급받게 되며, 배당이익이라는 것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 통장에 1백만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무리 간부였다 해도 10년 동안 2-300백만원의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당장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는 카드를 회수당합니다. 이에 대한 항의는 불가능합니다.

#### 라. 폭행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폭행이 항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사장, 원장, 총무 등의 간부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최근

에는 이들 간부직원들보다는 원생들 중에 신임할 수 있는 간부원생들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이 직원들을 대행하여 폭력을 행사합니다. 총실장, 실장(송현원은 감독) 또는 각 작업장의 반장으로 이어지는 원생 지휘체계를 통해 대리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관에 사람을 집어넣고 6개의 빗장을 지른 채 항복할 때까지 가두어 두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60세 가까이 되는 노인에게 원장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뺨뺨 밀고, 몇 시간씩 닥치는 대로 구타한 적도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은 이틀씩 계속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으며, 쇠창살에 뒤로 결박하여 매다는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 마. 성폭행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옷을 필요에 따라 세탁을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의 옷이 없고 열흘에서 20일에 한번씩 모두 세탁을 하고 나눠주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생리대도 구박을 받으면서 타 써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원과 원생 간부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여도 어디 호소 할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강제로 떼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에 충성스런 원생들에게 간부의 직함을 주고 살림을 차려주는데, 여성을 이 사장이 지목하여 부부 아닌 부부가 됩니다. 더욱이 여성들에게 피임을 위해 루프 수술을 강제로 하고, 간부직을 박탈하는 경우 살림을 깨고, 여성에게 채웠던 루프도 강제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 바. 강제투약

양지마을이나 송현원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의 일종



으로 투약을 합니다. 촉탁의는 있지만, 의사는 한달에 한번 형식적인 순회만 할 뿐입니다. 자격이 없는 간호보조사가 이들에 대한 투약을 책임지는 데 이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이사장과 원장 등의 간부직원들입니다.

양지마을의 오간호사는 이 때문에 원생들이 가장 중오하는 자입니다. 타살의 경우에는 암매장도 불사한다는 증언도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오간호사는 제때에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경우에도 외면해 왔다고 합니다. 또, 시설에서 죽은 경우에도 노재중의 소유인 한일병원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사인도 은폐됩니다. 의료보험 수가를 타기 위해 환자들이 없는 경우 환자들을 버스로 한일병원에 이송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오줌만 누고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 사. 자살 및 타살, 암매장 의혹

송현원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의 삶에 지친 이들이 비관자살하는 경우가 있으며, 폭행을 당하고 죽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만, 이들 죽음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장됩니다. 타살의 경우에도 직원과 원생 간부들이 경찰에 가서 미리 입맞춘 대로 진술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개미고개는 이들 억울한 원생들의 묻히는 공동묘지입니다. 실제 매장에 참가하였던 원생간부는 구덩이도 간신히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얇게 파며, 심지어는 비오는 날 묻고 돌아서는데 발이 밖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돌 때문에 구덩이 파기가 어려우면 시체를 구겨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구덩이를 파는데 사람 뼈가 나오는 경우도 그대로 위에다 묻고는 했다고 합니다.

#### 아. 정부지원금 횡령 및 임금 등의 착복

정부지원금이 양지마을 경상 운영비로만 5-6억원이 지원되던 것이 올해는 무려 4

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각종 신축건물에 대해서 10-20억원의 지원이 나오지만, 모든 인력을 거의 양지마을의 인력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그대로 착복하게 됩니다. 장부상에는 일인당 일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통장에도 10년 동안 노역에 시달린 경우에도 몇십만원만 입금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 대신 원생들을 장부에 올려놓고 임금을 착복하는 등의 의혹을 삽니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수익도 고스란히 수익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천성원 각 기관들과의 유착, 경찰과 공무원들과 유착비리, 정치권과의 커넥션 등이 밝혀져야만 양지마을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우리의 대책

민변과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건을 한 시설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둘러싼 중요한 한판 승부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즉, 온갖 부정과 범죄를 저지른 시설 관계자들일수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장내야만 사회복지는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퇴소자들을 중심으로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노재중과 시설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재중과 시설의 재산을 압류, 국고에 환수되도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운영·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사 / 업 / 보 / 고

(98년 6월 셋째주부터 7월 둘째주까지)

\*\*\*\*\*

### 『불심검문과 인권』 발간

캠페인은 소강상태

불심검문 캠페인팀에서는 지난 6월 24일, 56쪽 분량의 인권핸드북 『불심검문과 인권』을 펴냈습니다. 불심검문, 또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목적으로 만든 이 책자는 현재 1천부 중 541부를 판매한 상태입니다.

책자는 불심검문의 개요/불심검문과 인권/우리의 당당한 행동/정지/경찰관의 질문/신분증 제시/소지품 검사/임의동행/연행 및 구속영장의 실례 등으로 불심검문 및 연행, 구속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로 보는 불심검문, 불심검문 손배소송 청구 소송의 주인공, 당직변호사 제도, 법적 대응을 위하여 등과 쟁점 1.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쟁점 2.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검문/참고 Q&A/법률조항 및 참고사항 정리 등은 불심검문 및 연행, 구속절차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이 책자는 2천원에 판매중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구입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6월 24일 경찰청 항의집회는 경찰측의 집회금지 통고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가처분은 기각, 행정소송은 오는 8월 18일에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청 앞에서의 합법적인 집회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27일, 국민인권기구 법안 토론

오는 12월 10일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인권기구 설립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의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인권협은 지난 6월 23일, 앰네스티와 워크숍을 벌인 데 이어 인권협 외에 민교협 등의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3일 민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매우 구체적인 법적인 권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며, 오는 27일 준비된 법안 초안을 갖고 토론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은 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단체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권의 지형을 바꾸게 될 국민인권기구의 설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원건설 14일 고발, 수사 진행중

지난 7월 14일,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하였고, 8월초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도 '주택재개발 사업에 폭력배들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다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측에 발송한 다원건설 세무관련 서류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껏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다원건설 자료집 팀은 각종 인권유린 유형별로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8월 중순까지 체계적인 자료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다원건설(구 적준)이 살인범죄집단임을 명백히 입증해낼 계획입니다.

## 국보 교재 및 자료작업 순항

5회에 걸쳐서 학습을 진행하였던 국가보안법 팀은 7월부터는 자료팀과 교재팀으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팀은 91년 5월의 전면적인 개정 이후 7조 적용 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입증해 낼 계획입니다. 교재팀은 이전에 나온 국가보안법 책들이 분명한 인권적 관점 위에 서술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권적 시각에서 국보 문제를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교재를 구상중입니다. 이들 작업은 오는 11월 초순 책자로 발간할 것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이후 기초작업이 완성된 뒤에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인권교육실: 청소년 인권교재 작업을 추진중인 인권교육실은 7월중으로 삽화작업과 가편집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 인권교육실은 7월 27, 28일 이틀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의 국제청년캠프에서 강의를 맡게 됩니다. 6월말 1주일간의 서울대 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고, 대학생인권모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일간 연수를 마쳤고, 참여연대 참여아카데미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여름방학 사회복지학과생 실습에는 여름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생 6명이 8월 한달동안 참여하게 됩니다.

□ 인권정보자료실: 감옥인권실태설문조사 작업은 지금까지 151 설문의 주객관식 답변을 모두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연구자들을 모아 설문분석 작업을 벌이고, 아울러 다시 설문을 더 모을 계획입니다.

또, 자료실은 한겨레신문 스크랩을 98년 5월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후 권태평 어머니가 신문 스크랩을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사랑방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준비위

에 참가함에 따라 인권분야 네트워크 모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오는 8월 15일 이전에 인권네트워크를 시범적으로 띄우는 작업을 진보네트워크센터 팀과 준비할 예정입니다.

□ 이주영, 김삼석 씨 수습 채용: 지난달 배경내 씨를 수습으로 채용한 데 이어 7월부터는 김삼석, 이주영 씨를 수습 채용했습니다. 김삼석 씨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잘 알려진 경륜있는 활동가이며, 보안관찰법과 양심수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주영 씨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고, 인권하루 소식 기자와 불심검문 캠페인 팀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 김수경씨 임신, 한달간 휴직: 김수경씨가 첫아기를 임신, 입덧이 워낙 심한 탓에 7월 한달간 휴직중입니다.

□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묵는 동안 사무국 전원이 이들 때문에 매우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류은숙 씨는 밥해대느라, 이창조씨와 사무국장, 서대표 등은 이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7월 6일 박영섭씨의 도착을 시작으로 양지마을 사업에 매달리느라 재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행형연구 작업에 함께 하실 분!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될 감옥 인권실태 설문조사 사업은 인권사각지대인 감옥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설문지 분석작업과 행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보고서를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자문위원 중 이 일에 함께 하실 뜻있는 분들을 연구팀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이라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초까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2)741-5363(엄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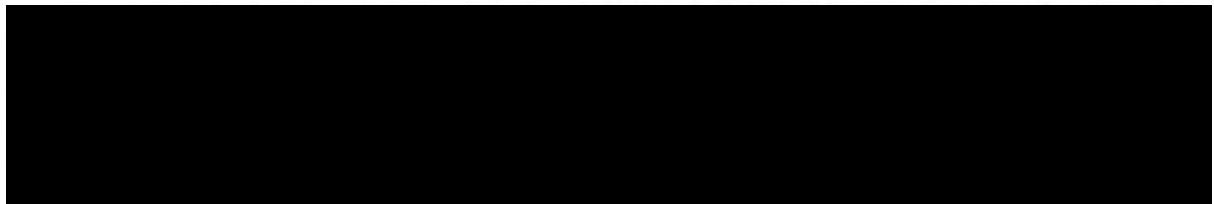


**98년 6월 재정보고**  
(98년 6월 16일 - 7월 15일)

전기이월: -2,225,576 원

| 수 입          |                    | 지 출          |                   |
|--------------|--------------------|--------------|-------------------|
| 회비           | 2,037,100          | 활동비          | 3,320,000         |
| 구독료          | 3,047,425          | 발송비          | 584,540           |
| 사업수익         | 1,009,500          | 사무비품비        | 580,410           |
| 후원금          | 325,250            | 사무실유지비       | 879,650           |
| 불심검물 카드·책자판매 | 1,470,000          | 간행물구독료및자료구입  | 71,500            |
| 기타           | 174,309            | 식대및 부식비      | 778,228           |
|              |                    | 통신·전화비       | 904,826           |
|              |                    | 사무기기         | 65,000            |
|              |                    | 복사비          | 727,160           |
|              |                    | 불심검문 사업비     | 1,470,560         |
|              |                    | 기타           | 186,100           |
| <b>수입총액:</b> | <b>8,063,584원</b>  | <b>지출총액:</b> | <b>9,567,974원</b> |
| <b>최종결산:</b> | <b>-3,729,966원</b> |              |                   |

<6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IMF 시대를 맞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상근자들의 활동비, 사업비 등으로 매우 긴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